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노 병 식*

〈목 차〉

- I. 머리말
- II.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過程
- III. 西原小京의 設置 및 變化
- IV.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 V. 맺음말

국문요약

新羅가 청주 중심지역을 완전히 지배한 것은 『三國史記』기록에 의거하여 文武王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문무왕은 673년경에 西原述城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 神文王은 685년 8월에 西原小京을 설치하였으며, 689년에 西原京城을 축조하였다. 西原小京은 政治·軍事的 性格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西原述城은 지금의 청주 上黨山城으로 비정된다. 西原述城의 축조는 西原小京의 설치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서 삼국이 통일된 이후 영토의 확장 및 인구의 증가와 전투양상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어체계에 따른 보다 큰 산성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西原京城은 西原述城이 축조된 후 불과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축조되었으며, 같은 지역의 牛岩山城으로 비정된다. 서원경성은 서원술성이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西原述城·西原京城은 일찍이 청주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임을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의 재편단계를 고려하여 都市의 背後에 山城을 축조하여 대외적으로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지배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따라서 西原述城은 신라가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기 전후인 7세기 중후반경 문무왕 때에 王都를 중심으로 외곽의 방어선을 완성하고,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주요 요충지에 대규모의 축성을 완수하여 신라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西原京城은 삼국통일을 완수한 이후부터 7세기 말경 神文王때에 지방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축성과 비교되며, 이전의 文武王대에 축성을 보완한 것으로서 통일이후 통치체도의 완비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新羅, 西原小京, 西原述城, 西原京城, 上黨山城, 牛岩山城

I. 머리말

新羅의 西原京은 百濟의 옛 땅인 熊津·泗泚까지를 아우르는 지방의 행정 수도로서 지금의 淸州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청주지역은 한반도의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일찍이 西北韓 地方이나 漢江流域으로부터 연결되는 교통로가 발달하였으며, 동쪽과 남쪽은 小白山脈의 峻嶺에서 이어지는 山麓 사이의 교통로를 따라 일찍이 嶺南地方과의 연결을 하여주는 중요한 위치에서 독특한 文化를 이루었으며,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청주 지역의 중심지역에는 井北洞土城·父母山城·牛岩山城(臥牛山城)·上黨山城·淸州邑城터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父母山城·牛岩山城·上黨山城 등에서 신라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부모산성에서는 백제토기편과 함께 新羅 고배편 등이 혼재되어 출토되어 百濟와 신라의 국경 전쟁이 치열했던 6~7세기경에 신라가 석축으로 쌓았으며, 후에 다시 백제가 경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신라의 진출 과정에서 축조된 성곽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한편 『三國史記』에는 西原述城과 西原京城이 名稱이나 記錄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城郭은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통치와 관련한 小京의 방어체계와 관련하여 축조된 성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西原述城은 서원소경이 설치되기 이전에 축조되었고,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후 西原京城이 축조되었다. 이들 성곽은 676년 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신라세력의 재편과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축성으로써 신라가 지금의 청주를 지배하면서 주된 기능을 하여 西原小京이나 西原京의 도시방어체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西原小京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 지역에 위치한 성곽에 대한 관심에서 이루어졌는데, 청주·청원지역에 대한 성곽연구는 1976년 이 지역의 산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삼국시대 성곽연구가 있었고,²⁾ 이후 개별성곽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서원소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격을 규명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졌으며,³⁾ 新羅 村落文書와 관련하여 이해를 심화시키기도 하였고,⁴⁾

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忠淸道 淸州牧, 「風俗」·「形勝」.

2) (재)中原文化財研究院, 「청주 부모산성 복문지 일대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2004; 『淸州 父母山城』, 2008.

3) 李元根, 「三國時期 城郭研究: 淸州·淸原地區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碩士位論文, 1976; 「三國時期 城郭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0.

청주지역에 위치한 여러 성터유적 및 불교유적의 검토를 통해 위치와 구조를 찾고자하는 노력이 있었다.⁴⁾

한편 최근의 연구는 서원경의 설치와 변화과정에 대해 삼국시대에 청주지역은 삼국이 침예하게 대치하던 交戰地域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그 지역을 지방의 행정단위로 편제하지 못하였다가, 신문왕 5년(685)에 신라는 청주지역이 옛 백제지역을 통제하기에 적합한 곳일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인 唐恩浦(唐項城: 화성)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그곳에 서원소경을 설치하여 지방통제의 據點都市로 삼았고, 당시 신라정부는 소경 아래에 공식적인 행정단위로 촌을 두어 小京民을 통치하였고, 이 밖에 편의적으로 막연하게 王京을 모방하여 소경의 영역을 6부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6부는 소경에서 賦役을 징발하거나 賦稅를 징수하고,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적극 활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⁵⁾ 한편 한국 고대의 王京과 都城, 別都 및 小京에 관한 연구 성과를 都市史的 觀點에서 해석하여 소경에서도 都市化가 진행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⁶⁾

서원경지역의 축성은 이 지역의 政治·軍事的 位相, 그리고 이 지역의 도시의 발전 및 都市防禦體系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서원경 지역의 축성은 신라의 발전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라 축성의 발전은 신라 정치체제의 발전 및 삼국통일에 따른 영역의 확장과 재정비 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서원경 지역의 축성은 신라 築城史와 비교가 가능하다. 신라 성곽의 발전은 정치적으로 지배체제의 강화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군사적으로 방어체제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서원경의 西原述城·西原京城에 대한 연구는 신라 地方都市의 築城 및 신라의 王都인 경주지역 축성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판단된다. 여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三國史記』를 비롯한 각종 史料를 통한 분석과 최근의 考古

4) 李宇泰, 『新羅 西原京 小考』, 『湖西文化論叢』7, 西原大學校湖西文化研究所, 1992, 29~59쪽.
梁起錫,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湖西文化研究』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3, 5~35쪽;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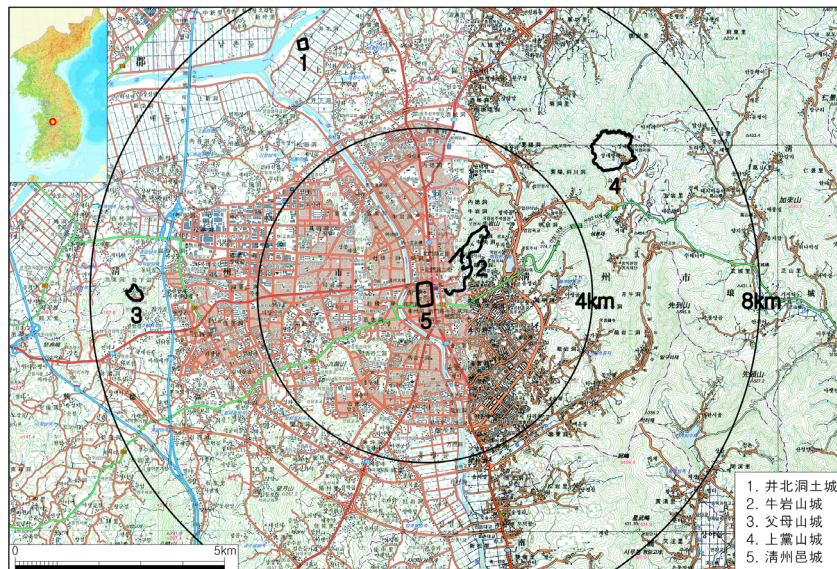
5) 李宇泰, 『新羅 西原京 研究의 現況과 課題: 촌락문서를 중심으로』, 『湖西文化研究』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3, 55~72쪽.

6) 車勇杰, 『西原京의 位置와 構造』, 『湖西文化研究』1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3, 37~53쪽.

7) 전덕재,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湖西史學』41, 湖西史學會, 2005, 1~34쪽.

8) 전덕재, 『韓國 古代의 王京과 都城, 地方都市』, 『歷史學報』207, 歷史學會, 2010, 329~354쪽.

學的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過程, 西原小京의 設置 및 變遷,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淸州地域의 城郭 分布圖

II.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過程

지금의 청주지역에 신라가 진출한 것은 『三國史記』에서 살펴보면 5世紀後半頃に 고구려의 南進에 대비한 조치에서 시작되었으며, 三國의 領域擴張에 대한 일련의 상황은 시기별로 나열하여 신라의 진출과정을 살필 수 있다.

5세기 후반경에 청주지역은 백제가 領有하고 있었고, 청주의 동쪽에 위치한 忠州·槐山지역은 고구려가 陣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신라는 청주의 바로 남쪽으로 고구려의 南進에 대비하여 陣을 치고 있었다. 신라는 三年山城⁹⁾과 一牟山城을 비롯한 여러 성¹⁰⁾을 쌓아 교통의 요지에 戰略的 據點을 마련하여 지배체계를 강화하였다. 여기에 지금의 청원군 文義지역에 위치한 壤城山城은 『三國史記』에 보이는 慈悲麻立干 17년(474)에 쌓은 一牟山城으로서 이 산

⁹⁾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3年 “築三年山城(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 訖功故名之)”

¹⁰⁾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7年 “築一牟 沙尸 廣石 沓達 仇禮 坐羅 等城”

성의 아래에 있는 米川里古墳群 발굴조사에서는 豎穴式石槨墓에서 橫口式石槨墓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구조에서 一段透窓의 적갈색 연질 굽다리접시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5세기 후반 내지는 6세기 전반경에 신라가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¹⁾ 이러한 사실은 아직 신라의 진출 이전에 청주지역은 지속적으로 백제 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신라 慶州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길 가운데 지금의 報恩·文義지역을 경유하여 올라온 이유는 당시 삼국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북쪽으로 고구려가 대치하고 있었으며, 고구려에 대항하여 신라와 백제가 바로 인접하여 同盟關係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라는 이 지역을 경유하여 黨項城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개척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고구려는 長壽王 63년(475)에 3만의 대군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여 漢城(慰禮城)을 함락시키고,¹²⁾ 백제는 漢城에서 熊津(公州)으로 遷都하였다.¹³⁾ 그리고 炤知麻立干 6년(484)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하였을 때에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母山城 아래에서 고구려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¹⁴⁾ 고 하는데, 母山城의 전투는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금의 청주지역에 위치한 父母山城과 牛岩山城의 옛 지명이 大母山·母岩山이라고 하였음은 청주지역 주변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는 서기 소지마립간 8년(486)에 三年山城을 改修하였는데,¹⁵⁾ 이 시기는 신라의 석축산성 축조기술이 頂點에 달했던 시기이다. 한편 신라는 소지마립간 9년(487) 3월에 처음으로 사방에 郵驛을 설치했고, 해당 관청에 명해 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¹⁶⁾ 여기에 신라는 이미 慶州에서 尙州·金泉을 거쳐 소백산맥을 넘어 報恩·沃川·永同 지역을 거쳐 淸州에 이르는 교통로가 개척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축성은 政治·軍事的으로 고구려에 대한 방비책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교통통신수단으로서 郵驛制度의 정비는 政治的으로는 안정적인 收取體系 및 對中國 外交를 위한 교통로의 준비과정이었다고 보인다.

11) 국립문화재연구소, 『淸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5.

12)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63年 9月 “王帥兵三萬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 夫餘慶 虜男女八千而歸”

13)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1年 冬10月 “移都於熊津”

14)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 秋7月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合擊 於母山城 下 大破之”

15)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 春5月 “拜伊滄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改築三年屈山二城”

16)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9年 3月 “始置四方郵驛 命所司修理官道”

백제 東城王(479~501)은 493년 3월에 신라와 婚姻同盟을 맺어 兩國의 同盟關係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하였다.¹⁷⁾ 한편 소지마립간 16년(494) 7월에 將軍 實竹 등이 고구려와 薩水의 들판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犬牙城을 지켰는데 고구려 군사가 그곳을 포위하였고, 백제왕 牟大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니 포위를 풀었다.¹⁸⁾ 고 하는 薩水之原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지금의 청주 동남쪽에 위치한 괴산군 청천면과 청원군 미원면 일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금의 청주 중심지역으로부터 외곽의 동남쪽으로 琅城·謳羅山城(구녀산성)¹⁹⁾ 등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산성은 보은 삼년 산성에서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제 聖王(523~554)은 538년에 泗泚로 遷都하였다.²⁰⁾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 2년(541)에 백제와 和親(羅濟同盟)을 맺었다.²¹⁾ 진흥왕 9년(548) 봄 2월에 고구려가 穢人과 함께 백제의 獨山城을 공격하였으므로 백제가 구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²²⁾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에서 점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진흥왕 11년(550) 1월에 百濟가 고구려의 道薩城을 攻取하고, 3월에 高句麗는 백제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여기에 신라 진흥왕은 양국이 싸움에 지친 기회를 타서 이 2개의 성을 공취한 다음에 성을 증축하기도 하였다.²³⁾ 여기에 道薩城은 高句麗 道西縣에 比定되기도 하며, 현재 曾坪 地域에 있는 二城山城을 포함한 頭陀山城 일대로 比定하기도 하였다.²⁴⁾ 그리고 金峴城은 연기군 전의면과 전동면의 경계에 있는 金城山城 또는 金伊城으로 비정하고 있어 주목된다.²⁵⁾ 이 사건은 신라가 청주지역 일대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17)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5年 春3月 “王遣使新羅請婚 新羅王以伊食比智女歸之”

18)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6年 秋7月 “將軍實竹等 與高句麗 戰薩水之原 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兵圍之 百濟王牟大 遣兵三千救解圍”

1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清原 謳羅山城』, 2001.

20)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聖王 16年 春 “以都於泗泚”

21)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年 “百濟遣使請和許之”

2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9年 春2月 “高句麗與穢人 攻百濟獨山城 百濟請救 王遣將軍 朱玲領勁卒三千擊之 殺獲甚衆”

2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1年 春5月 “百濟 拔高句麗 道薩城”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1年 3月 “高句麗 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食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 增築 留甲士一千 戍之”

『三國史記』卷29, 『高句麗本紀』7, 陽原王 6年 春1月 “百濟來侵 陷道薩城”

『三國史記』卷29, 『高句麗本紀』7, 陽原王 6年 春3月 “攻百濟金峴城 新羅人乘間 取二城”

24) 閔德植,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史學 研究』36, 한국사학회, 1983, 1~57쪽.

25)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57쪽.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청주 동쪽 외곽에 위치한 증평의 도살성에서 북쪽으로는 曾坪~鎭川~天安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曾坪~米院~倉里~三年山城~尙州~善山~慶州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라 진흥왕의 청주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조선후기의 『大東地志』에서 청주지역이 高句麗 陽原王 7년(551)에 신라에 편입되었다²⁶⁾고 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청주 주변에 위치한 城郭이나 古墳들에서 출토되는 遺物들에 대한 편년은 대략 6世紀 中後半 以後의 것들로서 주목되는데, 청주 父母山城 내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이 시기의 新羅 短角高杯片이 일부 출토되고 있음²⁷⁾은 주목된다.

한편 新羅 眞興王은 551년에 娘城에 巡幸하기도 하였다.²⁸⁾ 그리고 553년에 신라는 百濟가 차지하고 있던 漢江流域을 빼앗아 新州를 두어 다스렸다.²⁹⁾ 그러나 百濟 聖王은 이에 憤慨하여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신라를 치다가 聖王 32년(554) 7월에 管山城 戰鬪에서 戰死하면서 羅濟同盟이 決裂되면서³⁰⁾ 대립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신라가 청주 중심지역에 진출한 것은 아직 羅濟同盟의 영향 아래 있었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551~553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를 즈음하여 부모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실시된 청주 父母山城은 外壁의 補築城壁 및 懸門構造 등 新羅系 石築山城 樣式의 傳統的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시 백제가 再使用하면서 성벽구조는 扶餘 羅城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흙으로 쌓고 외부는 돌을 쌓은 백제식 성벽 축조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6세기 후반~7세기 초의 것으로 보이는 백제 토기 및 ‘前’·‘後’字 등을 새긴 백제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아울러 6세기 중후반경의 신라 高杯와 뚜껑 및 盃 등 토기류가 다수 수습되었다.³¹⁾

26) 『大東地志』 忠清道, “馬韓地域 西漢之末 百濟新羅分而有之 沃川報恩永同黃澗青山懷仁文義本 新羅所拓. 忠州淸風丹陽槐山堤川永春豐淸州淸安鎭川百濟南遷後爲高句麗所取 至陽原王七年 入于新羅.”

2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각주 2.

2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年 春5月 “開元開國 三月 王巡守 次娘城”

29)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 秋7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滄武力 爲軍主…”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聖王 31年 秋7月 “新羅 取東北鄙 置新州”

30)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年 秋7月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新州 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急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31)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각주 2.

부모산성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를 고려하면 당시 정황으로 보아 신라 眞興王의 北進時期로서 이 지역을 두고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은 6세기 중반경에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통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시 백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청주지역 주변으로의 진출은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나, 청주 중심지역 진입은 아직 이 지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백제와의 동맹관계에서 우회적으로 점차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주지역 이남에 위치한 신라는 三年山城으로부터 北進 경로가 報恩~懷仁~文義에서 곧바로 청주로 진출할 수 있지만, 백제와의 관계를 고려한 신라가 동쪽의 報恩~米院~曾坪~鎭川 방향으로 우회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新羅의 進出로 주변에 위치한 城郭이나 古墳 등에서 出土되는 考古學的 遺物들에 대한 編年은 대략 6世紀 中後半 以後의 것들로서 주목되며, 이 시기를 즈음하여 일시적으로 청주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百濟는 다시 6세기 후반~7세기 초에 청주 중심지역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다시 7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에게 넘겨준 듯 보인다. 여기에 649년 8월에 백제 장군 殷相을 보내 정예 군사 7천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石吐城 등 7개 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나 新羅가 道薩城 아래 陳을 치고 또다시 싸워 승리한 戰史가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德王 3년 8월조, 『列傳』 金庾信, 『百濟本紀』 義慈王 9년 8월조 등에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사건은 신라가 결정적으로 청주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되는데, 石吐城은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의 文案山城으로 비정하고, 道薩城은 고구려 道西縣과 관련한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군 道安面으로 비정하고 있다.³²⁾

여기에 신라는 진흥왕 11년(550)에 道薩城과 金峴城을 빼앗은 이후에 청주 주변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들 지역은 484년 毋山城 전투와 494년의 薩水之原전투가 이루어졌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의 서쪽에 위치하였던 백제의 據點인 청주지역의 父母山城은 아직까지 백제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新羅는 6세기 중반경에 청주지역에 일시적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히 지배한 것은 『三國史記』에 청주지역은 百濟의 옛 서울인

³²⁾ 민덕식, 앞의 논문, 1983, 각주 24.

熊州 소속이었다가 新羅 文武王이 차지하였다.³³⁾ 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7세기 중후반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西原小京의 設置 및 變化

『三國史記』에 의하면 지금의 청주지역을 신라가 완전히 차지하여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文武王때이며, 문무왕은 西原述城을 축조하였다.³⁴⁾ 한편 신문왕 5년(685) 8월에 西原小京을 설치하여 청주지역의 統治體制가 정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문무왕 16년(676)에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전후에 이루어졌던 사실이며, 西原京으로 改稱되기 이전의 사실로서 주목된다.

한편 西原小京에 대해 『三國史記』를 비롯한 후대의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史料 1>

神文王 5年(685) 3월에 西原小京을 설치하여 阿滄 元泰를 仕臣으로 삼았다. 南原小京을 설치하고 각 州郡의 백성들을 옮겨 나누어 살게 하였다.³⁵⁾

<史料 2>

西原京은 神文王 5年(685)에 처음으로 西原小京을 설치했는데, 景德王이 西原京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淸州다.³⁶⁾

<史料 3>

神文王 9年(689) 가을 윤9월 26일에 獐山城에 행차하였다. 西原京城을 쌓았다.³⁷⁾

<史料 4>

본래 백제의 上黨縣인데, 신라가 차지하여 神文王 5년에 처음으로 西原小京을

³³⁾ 『三國史記』卷36, 『雜志』5, 地理3, 新羅 熊州 “牟 百濟舊都 唐 高芝 遣 蘇定方 平之置 熊津都督府 新羅 文武王 取其地有之 神文王 改爲熊川州 置都督 景德王 十六年改名 熊州…”

³⁴⁾ 『三國史記』卷47, 『列傳』7, “仇近 從元貞公 築西原述城…”

³⁵⁾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5年 3月 “置西原小京 以阿元泰 爲仕臣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 分居之”

³⁶⁾ 『三國史記』卷36, 『雜志』5, 地理3, 新羅 西原京 “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改名西原京 今淸州”

³⁷⁾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9年 秋閏 9月 26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두었다가, 景德王 때에 西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 23년(940) 庚子에 淸州로 고치었다.³⁸⁾

<史料 5>

본래 百濟의 上黨縣이다. 娘臂城이라고도 하고 娘子谷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神文王 5년에 처음 西原小京을 두었다가, 景德王 때에 西原京으로 昇格시켰고,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³⁹⁾

<史料 1·2>에서 보듯이 685년에 西原小京을 설치하고 阿滄 元泰를 小京의 통치 책임자인 仕臣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체제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각 주군의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元泰는 신라 眞骨家門 출신의 유력한 인사로서 서원경의 初代 仕臣으로 부임해 온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찬 원태가 사신이 된 것은 이전에 인접한 國原小京의 阿滄 春夫가 군주가 된 것과 비교하여 같은 직위의 동일 관등으로서 주목된다.

<史料 3>에서 보듯이 신문왕은 신문왕 9년(689)에 獐山城에 행차하였다고 하는데, 장산성은 지금의 경북 경산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의 王京으로부터 西原京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널리 이용되었고, 지리적으로 청주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국제정세에서 중국 당나라와 뱃길이 연결되는 黨項城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청주를 경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어느 정도 統一된 체제하에서 飛躍的인 發展을 하면서 擴大한 영토와 인구를 지배하면서 국력신장을 도모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王京을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면서 王京이 가진 지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5小京을 설치하여 보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5소경은 軍事·行政의 要衝地에 설치하여 首都인 王京이 남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으며, 그곳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사람들을 끌고루 옮겨 살게 하였다. 신라의 5소경 설치의 小白山脈 이북에서 國原小京을 중심으로 교통로상의 요지에 설치되고

38) 『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本百濟上黨縣 新羅取之 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改名西原京 高麗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淸州”

39)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忠淸道 淸州牧, “本 百濟上黨縣(一云 娘臂城 一云 娘子谷) 新羅 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陞西原京 高麗 太祖二十三年 改今名”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증원경은 여러 서울 가운데 증원에 위치한 서울의 의미하고, 서원경은 서원에 위치한 서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위명 소경은 平原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치가 군사적 측면보다 행정적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 설치지점도 小國이나 高句麗 및 百濟 때의 정치적 비중이 높았던 지역을 제외하고 오히려 이곳을 공제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기존세력의 연고와 영향력을 배제하고 인근의 州나 郡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서 중앙권력의 지방 지배를 적극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⁴⁰⁾

西原小京을 개척하거나 경영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충주지역의 國原小京에 6部の 徙民과 貴戚子弟를 비롯하여 대가야의 악사 우륵 등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남원소경에 고구려 유민을 徙民시킨 것⁴¹⁾과 비교하여 이 지역에도 사민정책이 이루어졌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 서원경에는 남원소경에 고구려 유민이 徙民된 예를 들어 서원경 지역에도 고구려 유민들을 이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⁴²⁾고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설치한 西原小京이 옛 백제지역이었던 지금의 청주지역에 설치되었음은 주목된다. 이는 政治·軍事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유일 수 있다. 여기에 청주지역은 백제유민의 본거지인 扶餘와 公州를 견제하고, 당시 주요 교통로인 尙州와 公州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대로서의 입지성과 삼국시기 이래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원소경의 설치는 청주지역의 政治·軍事·經濟的 중요성 및 交通의 要衝地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본적으로 청주지역에 대한 統治手段이었다⁴³⁾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史料 4·5>에서 살펴보면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西原小京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三國史記』 『雜志』에는 분명히 景德王이 西原京으로 고쳤다고 하여 구분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후대의 『世宗實錄』 『地理志』, 『高麗史』 『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등에 그대로 답습되었다.

40) 梁起錫, 앞의 논문, 1993, 27쪽.

41) 임기환, 『報德國考』, 『講座 韓國古代史』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316~317쪽.

42) 김영관, 『新羅 西原小京의 歷史的 背景』, 『淸州 福臺洞 金호어울림아파트 敷地 內 淸州 福臺洞 遺蹟』,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520쪽.

43) 梁起錫, 앞의 논문, 1993, 22쪽.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이후에 지금의 청주지역에 설치한 서원소경은 경덕왕 16년(757)에 이름을 西原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 23년(940)에 淸州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주지역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오면서 政治·軍事·文化的으로 비중있는 位置에 서 있었음을 말한다.

그런가하면 신라의 통치에서 西原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史料 6·7>에서 보듯이 惠恭王 6년(770)에는 王이 친히 西原京에 약 4개월 정도 行次한 일이 있을 정도로 政治的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史料 6>

惠恭王 6년(770) 봄 정월에 왕이 西原京에 행차하였는데, 지나는 주와 현의 죄수들의 정상을 살펴 사면했다.⁴⁴⁾

<史料 7>

惠恭王 6년(770) 여름 4월에 왕이 西原京으로부터 돌아왔다.⁴⁵⁾

여기에 서원경으로 행차한 이유는 서원경 세력에 대한 慰撫的 性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沙喙部 소속 金武力이 한강유역을 진출하는데 기여하였고, 그의 아들 金舒玄은 萬奴郡 太守로서 활약하였으며,⁴⁶⁾ 金舒玄의 아들 金庾信은 청주지역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金庾信의 셋째아들인 元貞은 金庾信을 보좌하던 친구 仇近과 함께 西原述城을 쌓았다. 이처럼 청주지역은 金庾信의 가계와 밀접하게 이어지는 유서 깊은 지역이었음이 주목된다.

한편 혜공왕이 4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함은 西原京城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원경은 이미 문무왕대에 西原述城이 축조되었고, 신문왕대에 서원경성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경덕왕대에 서원경으로 개칭된 이후 서원경은 王京처럼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배후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에 혜공왕이 머물렀던 서원경은 이미 都市가 경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는 경덕왕의 專制政權하에 있던 귀족세력들이 정치일선에 등장해 정권

4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 6年 “春正月 王幸西原京 曲赦所經州縣繫囚”

45)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 6年 “夏四月 王至 自西原”

46) 『三國史記』卷41, 『列傳』1, 金庾信(上), “...舒玄 爲萬弩郡太守...”

쟁탈전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였던 시기이다. 해공왕의 재위 16년 동안에는 해공왕 4년(768) 金大恭의 난을 시발로 96角干의 亂이 3년간 계속되다가, 내물왕의 10대손 金良相이 해공왕을 시해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정치적 반란사건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평지보다 山城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평지에 어떠한 형태이든 防禦施設을 갖춘 治所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추측하여 볼 수 있겠으나, 보다 안정된 山城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평지의 도심에 인접한 우암산성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원소경이 설치되기 이전의 西原述城의 축조, 서원소경 설치 이후에 보이는 西原京城의 축성기록을 통해 서원경의 都市防禦體系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주 중심지역에는 무심천을 경계로 서쪽지역에 父母山城이 전해져 오고, 무심천 동쪽으로는 평지지역에 읍성터와 산지에 입지한 牛岩山城과 上黨山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서원소경의 초기 중심위치에 대하여 신문왕이 서원소경을 설치한 이후에 西原京城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쪽에 위치한 父母山城에는 既往의 축성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동쪽의 牛岩山城과 上黨山城에 주목할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설치한 西原小京의 중심위치가 山城이었는데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고대 據點城이 대부분 교통로를 따라 盆地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 현저한 산에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서원소경의 중심도 이와 유사한 구릉성 산지를 택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지역은 주변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도시이면서 왕경에서 徙民된 집단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면 평지에 성곽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으며, 도시지역에 土城 혹은 塙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유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왕경에서 平地城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왕경에서처럼 평지에 도시가 경영되고, 背後에 山城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도심이 위치하면서 배후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음은 고대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日帝強占期の 지형도에서 살펴보면 청주지역의 중심 하천인 무심천의 흐름은 보다 남쪽에서 곡류하였던 것이 점차 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청주의 무심천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서 갈수기에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으며, 동쪽의 우암산성 및 상당산성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서원경성은 이들 산성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 성과 등을 고려하면 부모산이 위치한 무심천 서쪽 지역보다 동쪽의 우암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統

—新羅時代 後期 이후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서원소경에서 서원경으로 개칭되었을 시점에서 都市計劃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무심천 동안의 평지에서는 최근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되고, 일제강점기의 지적도에서 보면 도로망이 동서로 방격을 이루고 있어 서원경의 도시구조는 왕경을 모방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원경의 도시구조는 평지의 도시와 배후에 산성이 위치한 구조로서 도심지역은 왕경을 모방하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西原京의 도시구조는 도심의 중심에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無心川의 동안으로 이어지는 충적대지에 도심이 위치하고, 그 동쪽의 산록에는 背後山城이 위치한 구조이며, 도심 주변의 지역에는 작은 자연촌락을 이루면서 주요 지역에 산성이 배치되어 있어 중심지역과 구분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도시구조는 신라의 5小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背後에 山城을 두고 있는 특징과 비교된다 고 할 수 있다.

神文王 때에 西原小京의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터전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景德王 이후 西原京의 도시는 정치·경제의 중심지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행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통일 이전 심화된 전쟁의 양상을 겪은 신라는 보다 안정화된 기반 구축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에 西原京은 이전의 도시와는 다른 政治·軍事的 측면을 보강하고, 行政·文化的 측면을 강조하면서 政治的·文化的으로 비중 있는 도시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여기에 지방행정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자연히 인구가 밀집하고, 시장이 형성되어 物流가 증가하고 都市化가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西原京의 築城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밝혔듯이 西原述城과 西原京城을 쌓았다고 하는 표현이 각각 문헌적으로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다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IV.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1. 西原述城

신라 서원술성과 관련한 史料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다음의 사료는 신라 서원술성을 축조할 때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史料 8>

김유신의 아들 三光이 나라의 정무를 맡았을 때, 裂起가 찾아 가서 郡의 太守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열기가 祇園寺의 승려인 順憬에게 “나의 공이 큰데 郡守를 청하여 허락받지 못하였다. 삼광이 아마도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여 나를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순경은 삼광을 설득시켰고, 삼광은 (裂起에게) 三年山郡의 太守 職位를 주었다.

仇近은 元貞公을 따라 西原述城을 쌓고 있었다. 원정공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게을리한다고 하면서, 그를 곤장으로 때렸다. 仇近이 “내 일찍이 열기와 더불어 미루어 알기 어려운 땅에 들어가 大角干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았기에 대각간은 나를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고 國士로 대접하였습니다. 지금 뜬소문으로 나를 벌하니, 평생의 치욕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정이가 말을 듣고, 종신토록 부끄러워하고 후회하였다.⁴⁷⁾

위의 사실은 金庾信의 맏아들 三光이 執政하였을 때에 裂起가 오늘날의 보은지역인 三年山郡의 太守가 되었고, 그와 함께 金庾信을 보좌하던 친구 仇近은 金庾信의 셋째아들인 元貞을 따라 西原述城을 쌓았다는 것이다.

위 史料를 통해 서원술성이 축조되기 이전까지 아직 三年山城이 강조되어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원술성의 축조 시기는 673년 7월 金庾信이 죽은⁴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원술성의 축조 시기는 文武왕 12년(672)에 漢山州의 晝長城이 축조되었고, 文武왕 13년(673)에 충주지역에 國原城이 축조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西原述城은 신라가 청주지역에 진출한 이후, 676년 삼국통일이 완수되기 이전에 축성되었다. 그런데 『三國史記』에서 살펴보면 서원술성과 같은 시기에 축조된 신라의 성곽들이 대부분 山城들로서 규모가 크지만, 山城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산성들은 대부분 石築構造로서 구조적으로 입면의 형태 및 단면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西原述城은 신문왕대에 축조된 西原京城과 同一한 城의 異記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西原述城의 ‘述’字의 의미를 京을 述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하여 述을 서울의 한 옛말로도 표현한 것이라고 하여 축조시기가 거의 同時期라는 점에서 同一한 城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⁴⁹⁾ 그러나 이 시기를 즈음하여

47) 『三國史記』卷47, 『列傳』7.

48) 『三國史記』卷43, 『列傳』3, “至秋七月一日 薨于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

49) 차용걸·안상경·박상일, 『우암산 그 역사의 숨결』, 『청주문화원 향토사료집』 5, 청주문화원.

분명히 새로이 축성된 西原述城은 새로운 양식으로 축성된 것으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 「城郭」조에 보이는 古上黨城과 관련한 것으로서 지금의 上黨山城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의 西原述城을 上黨山城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상당산성은 三國統一以後 發展된 樣式의 石築城으로 보이며, 상당산성은 서쪽과 북쪽으로 낮은 구릉과 평야지대를 끼고 있으며, 동쪽의 산록을 넘어서는 옛 교통로가 남아있다.

여기에 ‘述’字에 대한 인식은 청주 인근의 산성이 있는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고대 지명 등이 주성이라는 곳이 몇몇 있으며, 술은 語義가 파생되어 후대에 이르러 한자어 酒자와도 관련하여 주성·술성 등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며, 한편 수리 또는 수레 등과 관련하여 수는 수티·숫고개·탄현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명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山城이 위치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따라서 述자의 의미는 山城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덧붙여 말하면 청주를 주성이라고 한 것도 배후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어서 나온 말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 語義가 변화하여 酒城으로 불리던 것이 舟城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上黨山城은 淸州市 上黨區 山城洞 산28-1번지 일원 해발 491.2m의 봉우리를 연하는 산록에 위치한 石築山城이다. 上黨山城은 둘레가 4.2km이며, 성내면적은 180.826㎡로서 3개의 城門과 2개의 暗門, 그리고 3곳의 雉城을 갖추고 있으며, 城內에는 커다란 연못이 1개소가 있는 대규모의 包谷式山城이다.

상당산성은 朝鮮 前期의 기록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古上黨城이라 하여 古跡으로 다루고 있다.⁵⁰⁾ 그리고 英祖 20년(1744)에 상당산성의 승장이던 靈休의 『上黨山城古今事蹟記』에는 古上黨城은 東門이 지금의 東北暗門이었고, 南門이 西南暗門에 있었으며, 옛 水門은 房埃二層이었으며, 女牆은 灰를 사용치 않은 石築으로 되어있고, 성벽은 바깥이 4~5丈, 안쪽이 2~3丈으로 성벽위에 오를 수는 있어도 내려갈 수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上黨山城이 이미 設築되어 있어 朝鮮初期에 古上黨城으로 認識되었음을 보여주며, 古上黨城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上黨山城은 지속적으로 修築되어 다양한 築城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2001, 45~46쪽.

50) 『新增東國輿地勝覽』, 淸州牧, 「古跡」.

51) 金榮振, 「上黨山城古今事蹟記解題」, 『博物館報』3, 淸州대학교박물관, 1989, 33~53쪽.

상당산성에서 확인된 古上黨城 石築區間은 성벽의 基礎部에서는 地盤을 일정한 깊이로 판 후 돌을 섞어 넣어 단단히 다지는 積心工法을 사용한 후 밑에는 좀 거칠게 다듬은 큰 基壇石을 두고, 성돌을 약간씩 들여쌓아 횡으로 줄을 맞추어 쌓아올렸다. 이때 기단석 윗부분까지 외피부분을 흙으로 다짐하였다. 이와 같은 축성법은 고구려의 후기 도성인 평양성 내성 북벽의 기초에서 확인된 구조와도 비교된다.⁵²⁾ 그리고 기초부의 외면에 대한 처리방법 가운데는 성벽의 기단석 윗면까지는 흙을 다져 基壇外皮를 補築하여 견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성공법은 體城部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補築手法으로 토성의 성벽에서 보이는 외피보축이나 고대 신라성곽에서 보이는 基壇補築과도 비교되는 공법으로 상당산성의 후대의 성벽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공법이다.

상당산성 城壁의 斷面構造는 門址를 연하는 지역이나 水口 및 水門 지역 등 일부 구역에는 內外夾築의 성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은 內托工法에 의해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단면구조는 노출되어 수평으로 놓여있는 성돌들은 뒤 뿌리를 둔 성석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고, 석축의 내면과 토축 부분의 사이는 다듬지 않은 할석편으로 ‘梭石(북돌)다짐’하여 채웠다. 이러한 내탁공법은 우리나라 산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방법이기도 하다.

상당산성 古築 부분의 단면구조는 ‘침성대’처럼 曲線形城壁 구조를 보이며, 성벽은 체성의 기초부에 기단석을 두고 성돌은 기단석에서 안으로 5~10cm를 들여서 축조하여 基壇石이 돌출된 모습이다. 각 성돌은 약 4~10cm 정도씩 퇴물림하였다.

상당산성의 성벽의 입면구조는 성돌의 외적인 형태에서 정방형이나 장방형을 이루면서 표면의 입면과 모서리 부분을 골고루 정다듬질하여 가공한 성돌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주로 북쪽의 성벽과 서쪽 고축의 성벽에서 보이며, 서문에서 북벽을 연하여 동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체성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만 한정하여 큰돌을 사용하고 위로는 같은 크기의 성돌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高句麗城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⁵³⁾ 이는 고구려와 같은 북방으로부터의 영향을 짙게 받은 유풍이 이 지역에 전존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52) 최희립,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고고민속』, 1967 (민덕식, 『高句麗의 後期 都城』, 『韓國史論』19, 1989, 179쪽에서 재인용). 평양성의 내성은 축조시기가 서기 566년으로 신라에서는 황룡사가 준공된 시기이기도 하다. 황룡사의 목탑 기초부는 적심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기초다짐은 고대의 판축기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3) 閔德植, 『三國時代 築城法에 관한 몇 가지 試考』, 『白山學報』38, 1991, 39쪽.

있다. 상당산성의 고축과 같이 성돌을 다듬어 축조한 예는 新羅의 神文王陵의 護石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古上黨城의 성벽에서 사용한 축성 기법의 전통은 적어도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1년도 상당산성의 발굴조사에서 옛 서문터에 연하여 확인된 석축 가운데 커다란 列石이 이어지고 있음⁵⁴⁾은 日本의 고대 성곽 가운데 神龍石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神龍石은 우리나라의 산성과 동일한 것으로 계곡부분은 돌로 벽을 만들고 城門과 水口를 두었으며 대부분의 성벽은 돌로 된 기단위에 판축의 토루로 구성되었다. 神龍石의 축조연대는 아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백제의 축성술이 주축이 되고 신라와 고구려 계통의 영향도 받아 이룩된 우리나라 성곽전통으로 보여주고 있음은 주목된다. 그렇다면 고상당성의 초기 구조는 이러한 신농석 유형이 있었을 수도 있다.

상당산성의 초축과 관련한 유물로는 新羅後期の 印花文土器片 및 沙啄(梁)部銘瓦片 등이 上黨山城 남문 주변에서 출토된 바 있다. 沙啄(梁)部는 新羅의 서울 金城에 있었던 6部의 하나이다.⁵⁵⁾ 청주지역의 신라시대 유물은 극히 한정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최근 발굴조사된 淸州 鳳鳴洞遺蹟의 石槨墓나 龍岩洞 石槨墓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附加口緣臺附瓶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청주지역의 통일신라시대 토기에 대한 약간의 편년적 고찰을 시도한 견해는 대략 이들 유적의 시기는 대략 7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그리고 상당산성 남문 밖에서 출토된 水滴形文+馬蹄形文 인화문토기 뚜껑편도 통일을 전후한 시기인 7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는 기종으로 볼 수 있다.⁵⁷⁾

상당산성의 고상당성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성벽의 初築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절대연대를 측정을 실시하여 얻어낸 결과는 서기 眞平王 36년(575)과 진평왕 42년(620)이라는 연대는 통일신라 이전의 시기로서 실제 西原述城의 시기보다 앞서며, 古上黨山城에 대한 戰術的 使用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되나, 아직 이 시기의 문헌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古上黨山城은 이전에 전술적으로 이용하던 곳으로서 신라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본격적인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⁸⁾

5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上黨山城城壁補修區間內試·發掘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 第151冊, 2004.

55) 李在俊, 『沙啄部銘平瓦에 對한 小考』, 『西原學報』2, 西原學會, 1981.

56) 성재현, 『淸州地域 出土 新羅土器의 編年과 性格』, 『湖西考古學』6·7, 湖西考古學會, 2002, 295~330쪽.

57)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上黨山城: 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1997.

5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책, 2004, 245쪽.

여기에 西原述城의 축성 배경은 西原小京의 설치 이전의 일로서 삼국통일 이후 보다 안정된 사회에서 이전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던 據點山城보다는 영토의 확장 및 인구의 증가와 전투양상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어체계에 따른 보다 큰 산성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서원술성의 축조는 아직 軍事的 성격이 강하였다고 보여지며,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 성격을 보이면서 규모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높은 高度에 축성되어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西原京城

西原京城은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 9년(689)에 축조되었으며,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후에 축조되었다. 한편 서원경성의 축조는 앞서 살펴본 西原述城의 축조시기 문무왕 13년(673)이후 보다 약 16년 후에 진행된 일이었음은 주목된다.

신라의 서원소경의 설치 및 西原京城의 축조와 관련한 사료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신라 서원소경의 설치 및 서원경성의 축조와 관련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史料 9>

신문왕 5년(685) 3월에 西原小京을 설치하여 阿滄 元泰를 仕臣으로 삼았다.⁵⁹⁾

<史料 10>

신문왕 9년(689) 가을 윤9월 26일에 獐山城에 행차하고, 西原京城을 쌓았다.⁶⁰⁾

西原小京이나 西原京과 관련한 西原京城의 위치에 대한 연구는 산성에 주목하여 上黨山城,⁶¹⁾ 唐山土城⁶²⁾으로 비정되기도 하고, 평지의 도시에 주목하여 淸州邑城의 舊址⁶³⁾ 등에 비정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필자 또한 西原京城을 평지의 조선시대 읍성터에 비정하였으나⁶⁴⁾ 아직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이 시기의 성곽이 평지에 축조되어 있음은 발견된 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

59)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5年 3月 “置西原小京 以阿滄元泰 爲仕臣”

60)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9年 秋 閏 9月 26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61) 李在俊, 앞의 논문, 1981, 각주 55.

62) 朴泰祐, 『統一新羅의 地方都市에 대한 研究』, 『百濟研究』18, 1987, 65쪽.

63) 梁起錫, 앞의 논문, 1993, 27쪽; 羅庚峻, 『新羅 西原京治址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64) 盧秉湜, 『淸州地域 古代 城郭의 性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평지에서 8세기 이후의 신라 유적 및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서원술성이 축조된 이후 서원소경이나 서원경의 주된 중심지역은 여전히 이전의 우암산성과 관련한 주변지역으로 하여 행정적 치소 등의 기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덕왕 16년(757) 서원소경에서 서원경으로 改名 혹은 昇格은 이러한 주변의 산성을 축조하여 안전한 방어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평지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원경의 도심지역의 개략적인 구조는 왕경처럼 읍성의 내부가 일정하게 구획되었을 것이며, 이는 고려시대의 청주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지의 도시와 배후에는 우암산성과 보다 높은 古上黨城이 중첩으로 이어져 防禦都市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西原京城은 아직 산성으로서 牛岩山城의 內城으로 비정된다. 우암산성은 土築構造로서 상당산성보다 낮은 위치에 축조되어 있어 주목된다. 우암산성 내성의 평면형상은 계곡의 만곡하는 부분과 능선의 돌출된 부분을 적절히 이용하여 방어를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보은의 삼년산성을 비롯한 신라 석축산성에서도 보이고 있다. 한편 상당산성에서 내려다보면 도심의 중간지역이 보이지 않으나, 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우암산성에서 보면 도시 전체를 내려볼 수 있어 도시의 배후산성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우암산성은 청주시 上黨區 壽洞, 大成洞, 牛岩洞의 동쪽 해발 353m의 高地에 위치하여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 산성은 동고서저의 산세를 대체로 따라 내려와 가운데 큰 계곡을 이루며, 山城은 전체 남북 길이가 1.8km의 범위에 걸치며, 현재 內城의 전체둘레는 약 2,997m이고,⁶⁵⁾ 外城까지는 약 4km가 더 되나, 청주의 도심을 향하여 底谷을 이룬 羅城構造의 서쪽 성벽은 주택의 밀집으로 인하여 완전히 유실되었다.

우암산은 조선시대의 지리지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唐羨山’이라고 하고,⁶⁶⁾ 『大東地志』에는 ‘唐羨山’이라 하고,⁶⁷⁾ 日帝初의 記錄인 『淸州沿革誌』⁶⁸⁾ 『朝鮮環輿勝覽』⁶⁹⁾ 등에는 ‘牛山’이라고 略稱되기도 하여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까지 ‘臥牛山’이라 불려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는 壯岩山, 大母山, 母岩山 등이 기록으로 보이고 있다.⁷⁰⁾ 이밖에

65) 李元根, 앞의 논문, 1976, 53쪽.

66)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淸州牧 『山川』.

67) 金正浩, 『大東地志』, 忠淸道 淸州, 『山水』, 1865.

68) 大熊春峰, 『淸州沿革誌』, 1923, 178쪽.

69) 李秉延, 『朝鮮環輿勝覽』(淸州郡篇), 『山川』, 1929.

牧岩山, 木隱山 등으로도 전해진다.

우암산성은 지형상으로 우암산과 唐羨山은 서로 접해 있으며, 성터 또한 능선부를 따라 축조된 羅城으로 연결되어 있다. 1860년대의 『大東地志』 『山水』 조에는 唐羨山은 동쪽 1리에 있고, 『城池』조에서는 지명을 고성이라 하고, 동쪽 2리 唐羨山에 있다고 하고 있다.⁷⁰⁾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에는 토축산성으로 둘레 약 1,500間(1間은 1.8m로 약 2.7km), 높이가 평균 5尺, 기부의 폭이 2~4間(3.6~7.2m)으로 제법 완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암산성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이미 우암산에 있는 토성이 기능을 상실하여 古蹟化된 이후의 것들로서 이 지역에 토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우암산성의 구조는 안쪽의 높은 지역에 內城을 두고, 여기서 다시 산세를 따라 내려와 外城을 이루고, 또 平地의 都心까지를 에워싼 羅城의 구조로서 아래 평지에 위치한 청주 읍성터와 관련된 것이라 여겨진다. 淸州邑城은 羅城의 外城 부분이 山城과 분리된 상태에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암산성 아래에 위치한 唐山土城은 본디 牛岩山城의 副城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에 우암산성이 확장되어 함께 기능함으로서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牛岩山城의 평면적인 구조는 정상부의 산세를 따라 가운데 계곡을 둘러싼 包谷式의 山城으로서 비교적 성내 면적이 넓은 편이며, 城內의 水源이 풍부하다.

牛岩山城은 산의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지금의 淸州 都心과 연결되며, 주변의 동쪽은 背後로서 산록이 급경사를 이루어 접근하기 어려운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동쪽으로는 이 산성보다 높은 곳에 上黨山城(해발 490m)이 있다. 그리고 城의 주된 出入地域으로 추정되는 서쪽은 無心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 山城의 북쪽으로는 지금의 울랑동 지역의 ‘울랑천’, 남쪽으로는 ‘금천(쇠내천)’이 흘러 무심천으로 이어지면서 自然的인 防禦與件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立地는 우리나라 古代山城의 입지와도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1980년도에 우암산성 內城 西壁의 門址를 試掘調査한 바에 의하면 門은 성안에서 보아 좌측 문구축벽과 바다, 성벽의 폭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바깥쪽 아래의 기초부분은 비교적 큰 석재를 이용하고, 1.35m의 폭으로 쌓은 다음, 안쪽으로 60cm 폭의 조잡한 석재채움이 있다. 그 안쪽으로는 흙다짐을 하여 전형적인

7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충북편)』3, 1970, 624쪽.

71) 金正浩, 앞의 책, 1865, 각주 67.

內托外築의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문의 바닥은 관상석재를 깔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통일신라와 高麗 初期의 유물로 보여지는 경질의 토기편과 魚骨文 瓦片 등이 출토되고 있어서 門이 고려 초기에 改修되었음을 시사해주었다. 문의 측벽은 4.3m이었고, 안쪽에 평탄한 대지가 있다.⁷²⁾

우암산성의 성벽구축 재료는 土築으로서 부모산성이나 상당산성의 석축구조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암산성의 內城은 등산로를 따라 이어지는 土壘는 백제의 이른 시기에 축조된 土築構造일 수 있지만, 신라가 쌓은 토축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新羅係 石築山城보다 후대에 築城된 것으로서 주목된다.

우암산성에서 발견된 유물들 가운데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印花文土器片 및 沙啄(梁)部銘 瓦片⁷³⁾ 등 우암산성의 경영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인접한 上黨山城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沙啄(梁)部는 新羅의 서울 金城에 있었던 6部의 하나로서 주목된다.

서원경성으로 비정되는 우암산성의 土築構造는 서원경성의 축조보다 2년 앞선 시기인 신문왕 7년(687)에 지금의 尙州지역에 다시 州를 설치하고 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비교하여 상주시 만산동에 위치한 紫山山城은 土石混築된 포곡식산성으로서 비교된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다시 土築 혹은 土石混築 구조의 축성이 성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암산성은 신문왕 9년(689)에 신라가 지금의 청주지역에 축조한 西原京城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라는 서원경성을 축조하여 방어체계를 형성하고 그 아래에 평지에 도시를 개척하였던 것이다. 서원경성은 후에 왕조가 교체되어 고려시대에는 청주지역의 중심으로서 淸州城·淸州羅城으로 변화하여 지속적으로 경영되었다.

3.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

西原述城의 축조는 신라가 청주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文武王때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나, 인접한 충주지역의 국원성의 축조시기인 문무왕 13년(673)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원술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古上黨城과 관련한 것으로 지금의 上黨山城으로 비정되며, 둘레가 약 4.2km이다. 西原述城의 축성배경은 西原小京의 설치 이전의 일로서 삼국이 통일된 기반아래 보다 안정된 사회에서 이전의 교통의 요충지로

72) 車勇杰, 『西原京의 位置와 構造』, 『湖西文化研究』11,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 41쪽.

73) 李在俊, 앞의 논문, 1981, 각주 55.

서의 역할을 강조하던 산성보다는 인구의 증가 및 전투양상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어체계에 따른 보다 큰 산성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는 문무왕 13년(673) 2월에 西兄山城을 늘려 쌓았으며,⁷⁴⁾ 같은 해 8월에 沙熱山城을 증축하고,⁷⁵⁾ 같은 해 9월에 國原城(古藺長城, 忠州)·北兄山城(慶州)·召文城·耳山城·首若州의 走壤城(迭巖城)·達含郡의 主岑城·居烈州(居昌)의 萬興寺山城·敵良州(梁山)의 骨爭峴城 등을 쌓았다.⁷⁶⁾ 그리고 문무왕 19년(679)에 南山城을 늘려 쌓는 등⁷⁷⁾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지역에 많은 축성을 하였다. 한편 서원경에는 西原京이 설치되기 이전에 西原述城을 축조하였다.⁷⁸⁾

신라 문무왕대의 축성은 삼국통일 이후 통치제도에 대비하여 주요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신라 왕경의 외곽 방어망 완성과 지방 주요 요충지의 축성이 완성되었으며, 후에 신문왕대의 9州와 5小京 확정 지역 가운데 변방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대규모의 성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西原京城은 신문왕 5년(685)에 지금의 청주지역에 西原小京을 설치한 이후, 신문왕 9년(689)에 축조되었다. 西原京城은 청주 牛岩山城의 內城으로 비정된다. 西原京城으로 비정되는 우암산성이 상당산성보다 낮은 위치에 축조되어 있음은 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都市의 背後山城으로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서원술성의 불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원술성이 축조된 지 불과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새로운 성을 축조한 것은 서원경성을 축조한 이유일 것이다.

신라는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기 전후인 7세기 중후반경 문무왕대에 王都를 중심으로 외곽의 방어선이 완성되었고,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주요 요충지에 대규모의 축성을 완수하여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수한 이후부터 7세기 말 神文王의 9주 5소경 확정에 따른 지방 주요 도시에 축성이 완성되었다. 신문왕 5년(685)에 北原小京에는 둘레 1,031步의 성을 쌓았고,⁷⁹⁾ 신문왕 7년(687) 3월에 沙伐州城(尙州)과

7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春2月 “增築西兄山城”

75)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秋8月 “築沙熱山城”

76)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3年 秋9月 “築 國原城(古藺長城) 北兄山城 召文城 耳山城 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 達含郡主岑城 居烈州萬興寺山城 敵良州骨爭峴城”

77)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9年 秋8月 “增築南山城”

78) 『三國史記』卷47, 『列傳』7.

敵良州城을 쌓았고,⁸⁰⁾ 신문왕 9년(689)에 西原京城을 쌓았다.⁸¹⁾ 이 시기의 축성은 이전의 문무왕대에 축성을 보완한 것으로서 통일이후 통치제도의 완비와 관련되며, 나아가 지방제도의 재편성 과정에서 州와 小京 및 일반 군현에 성곽을 축성되고, 통치제도의 완성과 함께 축성사업의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7세기 중후반경 문무왕·신문왕대를 즈음하여 성곽의 입지는 이전의 독립된 구릉성지형에서 보다 발전하여 배후에 높은 산맥이 이어지는 곳으로 이동하여 入保機能이 강조되고 있으며, 둘레 2km 이상의 대규모 산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축성공법은 석축산성은 성벽 입면에서 장방형의 정다듬질 된 성돌이 사용되고, 성돌의 길이가 개 이빨처럼 길게 이어지는 모습으로서 일명 犬齒石이 유행하였으며, 성벽의 뒷채움방식은 이전의 수평쌓기에서 흙으로 채우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축성공법은 삼국통일 이후 백제 및 신라의 축성제도의 이점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청주의 우암산성 內城에서처럼 土築의 성벽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은 주목되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다시 土築 혹은 土石混築 구조의 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술성·서원경성은 도시의 배후에 위치하여 축조되었는데, 기왕의 성곽보다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산성은 신라 5小京지역 성곽의 입지와 비교하여 보면 평지의 도시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산성에서 바라보면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점차 안정화된 단계에서 산성 아래에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有事時에 평지지역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入保籠城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의 청주지역에 축조된 신라의 서원술성 및 서원경성은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의 재편단계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경지역의 대규모 축성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제도의 개편 이전에 이미 서원소경이 설치되었을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변의 도시지역에서의 축성은 왕경에서보다 큰 규모의 산성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비교된다.

신라가 서원소경을 설치하기 이전에 서원술성을 축조하였고, 서원경 설치 이후 서원경성을 축조하였음은 지금의 청주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경제적

79) 『三國史記』卷35, 『雜志』4, 地理2, 新羅 北原京 “本高句麗平原郡 文武王置北原小京 神文王五年築城周一千三十一步 景德王因之 今原州”

80)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7年 秋 “築 沙伐 敵良 二州城”

81)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7年 秋 閏9月 26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으로 풍요한 지역임을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배후에 산성을 축조하여 대내적으로 지배체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방어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서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의 재편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서원소경은 경덕왕 16년(757)에 서원경으로 改名 및 昇格은 이러한 주변의 산성이 견고하게 축조되어 안전한 방어체계가 확립된 후,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서원경은 평지의 도시가 형성되었고, 배후에는 우암산성과 상당산성이 중첩으로 이어져 방어도시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는 서원경성을 축조하여 방어체계를 형성하고 그 아래에 평지에 도시를 개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西原述城은 서원소경이 설치되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서 政治的·軍事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서원경성은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후의 일로서 行政的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원소경은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西原京으로 개칭되었으므로 이러한 바탕 아래 도시의 경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의 청주지역에 新羅가 진입이 시작된 것은 5世紀 후반경에 고구려의 南進에 대비한 조치에서 시작되어 청주 주변지역에서 있었으며, 청주 중심지역에 위치한 부모산성의 신라계 석축양식은 6세기 중반경에 일시적으로 신라가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시 백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新羅가 보다 확실히 청주 중심지역을 지배한 것은 『三國史記』기록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文武王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문무왕은 청주지역에 西原述城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 神文王은 신문왕 5년(685) 8월에 西原小京을 설치하여 통치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신문왕 9년(689)에 西原京城을 축조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설치한 西原小京이 옛 백제지역이었던 지금의 청주지역에 설치되었음은 政治·軍事的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西原小京은 景德王이 西原京으로 고쳤으며, 이후 청주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오면서 政治·軍事·文化的

으로 비중 있는 位置에 서게 되었다.

西原述城·西原京城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서원소경이 주변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도시로서 평지에 성곽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으나, 고고학적으로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유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왕경에서 평지성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왕경에서처럼 평지에 도시가 경영되고 背後에山城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西原述城이 축조되기 이전까지 중부내륙지역의 중심은 아직 三年山城이 중심이 되어 주변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원술성의 축조는 673년 7월 김유신이 죽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원술성의 축조 시기는 이전에 문무왕 12년(672) 漢山州의 晝長城이 축조되었고, 문무왕 13년(673)에 충주지역에 국원성이 축조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한편 西原述城은 신문왕 9년(689)에 축조된 西原京城보다 약 16년 앞선 시기에 축조되었다.

西原述城은 같은 시기에 축조된 신라의 성곽들이 대부분 山城이지만 『三國史記』 기록에 산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석축산성으로 구조적으로 입면의 형태 및 단면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西原述城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城郭」조에 보이는 古上黨城과 관련한 것으로서 지금의 上黨山城으로 비정된다. 그리고 西原京城은 牛岩山城의 內城으로 비정된다.

西原述城의 축조배경은 西原小京의 설치 이전의 일로서 삼국이 통일된 기반아래 보다 안정된 사회에서 이전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던 산성보다는 영토의 확장 및 인구의 증가와 전투양상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어체계에 따른 보다 큰 산성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西原京城으로 비정되는 牛岩山城이 上黨山城보다 낮은 위치에 축조되어 있음은 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都市의 背後山城으로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서원술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원술성이 축조된 지 불과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새로운 성을 축조한 것은 서원경성을 축조한 이유일 것이다.

西原述城·西原京城은 도시의 배후에 위치하여 축조되었는데, 기왕의 성곽보다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산성은 신라 5小京지역 성곽의 입지와 비교하여 보면 평지의 도시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산성에서 바라보면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하고 있어 공통적인 모습이다. 이들 지역은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점차 안정화된 단계에서 산성 아래에 도

시가 형성되었으며, 有事時에 평지지역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入保籠城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西原述城·西原京城은 일찍이 청주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임을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배후에 산성을 축조하여 대외적으로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지배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서 삼국통일 이후 신라 방어체계의 재편단계를 고려하여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西原述城은 신라가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기 전후인 7세기 중후반경 문무왕 때에 王都를 중심으로 외곽의 방어선을 완성하고, 지방의 안전과 통치를 고려하여 주요 요충지에 대규모의 축성을 완수하여 신라 방어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西原京城은 삼국통일을 완수한 이후부터 7세기 말경 神文王대에 지방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축성과 비교되며, 이전의 文武王대에 축성을 보완한 것으로서 통일이후 통치제도의 완비와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소경이 757년에 西原京으로 변화하였음은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점차 안정화된 단계에서 山城 아래에 都市가 형성되었으며, 有事時에 평지지역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入保籠城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西原述城은 서원소경이 설치되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서 政治的·軍事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서원경성은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후의 일로서 行政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新羅 西原述城·西原京城의 性格에 대해 관련기록의 분석과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아직 몇 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먼저 이들 지역의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지금까지 이들 지역의 산성에서 발견되는 유물 가운데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7世紀 이후의 考古學的 遺蹟이나 遺物이 相對的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西原京이었던 淸州地域의 관련 산성 및 遺蹟에 대한 구체적인 發掘調査 등에 의한 새로운 資料의 축적과 이에 따른 研究 등을 통해서 補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투고일 2014년 1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8일 ■

참고문헌

<사료>

- 『三國史記』
『世宗實錄』, 「地理志」, 1454.
『新增東國輿地勝覽』, 1481.
金正浩, 『大東地志』, 1865.
大熊春峰, 『清州沿革誌』, 1923.
李秉延, 『朝鮮環輿勝覽』, 1929.

<국내>

- 林炳泰, 「新羅小京考」, 『歷史學報』35·36, 歷史學會, 1967.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고고민속』, 196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3(충북편), 1970.
李元根, 「三國時期 城郭研究: 清州·清原地區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6.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閔德埴, 「鎭川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韓國史研究』29, 韓國史研究會, 1980.
李元根, 「三國時期 城郭研究」, 檀國大學校學校 博士學位論文 1980.
車勇杰, 「牛岩山所在 城址調查 概報」, 『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查 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
李在俊, 「沙喙部銘平瓦에 對한 小考」, 『西原學報』2, 西原學會, 1981.
閔德埴,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史學研究』36, 韓國史學會, 1983.
이인철, 『新羅 政治制度史 研究』, 일지사, 1883.
채희국, 『고구려역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朴泰祐, 「統一新羅時期的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7.
_____ 「統一新羅의 地方都市에 對한 研究」, 『百濟研究』18,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87.
金榮振, 「上黨山城古今事蹟記」解題」, 『博物館報』3, 清州大學校 博物館,

1989.

- 閔德埴, 『高句麗의 後期都城』, 『韓國史論』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 _____, 『三國時期 築城法에 관한 몇 가지 試考』, 『白山學報』38, 白山學會, 1991.
- 윤무병·박태우, 『五小京의 位置 및 都市構造에 대한 一考察』, 『中原京과 中央塔』, 충주공업전문대학 박물관, 1992.
- 李宇泰, 『新羅 西原京 小考』, 『湖西文化論叢』7, 西原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2.
- 梁起錫,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湖西文化研究』11,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
- 車勇杰, 『西原京의 位置와 構造』, 『湖西文化研究』11,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
- 國立文化財研究所. 『清原 米川里古墳群』. 1995.
-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上黨山城：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1997.
- _____,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998.
- _____, 『清州 父母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998.
- 梁起錫, 『新羅의 清州地域 進出』, 『文化史學』11·12·13, 韓國文化史學會, 1999.
-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清州上黨山城』, 1999.
- 羅庚峻, 『新羅 西原京 治址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0.
- 강민식, 『신라 서원소경의 유적과 유물』, 『新羅 西原小京 研究』, 서경문화사, 2001.
- 山本孝文, 『考古資料로 본 新羅勢力의 湖西地方 進出』, 『湖西考古學』제 4·5, 湖西考古學會, 2001.
- 梁起錫, 『신라서원소경연구』, 서경문화사, 2001.
- 차용걸·안상경·박상일, 『우암산 그 역사의 숨결』, 『청주문화원 향토사료집』 5, 청주문화원, 2001.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清原 壤城山城』, 2001.
- _____, 『清原 謳羅山城』, 2001.
- 徐榮一, 『충북의 고대사회』, 忠北學研究所, 2002.
- 성재현, 『清州地域出土 新羅土器의 編年과 性格』, 『湖西考古學』6·7, 湖西考古學會, 2002.

- 車勇杰, 『보은의 성곽』, 보은문화원, 2002.
- 임기환, 『報德國考』, 『講座 韓國古代史』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朴相侑, 『忠北地域의 邑城에 대한 小考』, 『충주읍성의 복원적 연구』, 예성문화연구회, 2004.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上黨山城-城壁補修區間內試·發掘調査報告書』, 2004.
- 盧秉湜, 『清州地域 古代 城郭의 性格』,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 전덕재, 『西原小京의 設置와 行政體系에 대한 考察』, 『湖西史學』41, 湖西史學會, 2005.
- 김영관, 『新羅 西原小京의 歷史的 背景』, 『清州 福臺洞 金호어울림아파트 敷地 內 清州 福臺洞 遺蹟』,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 (재)中原文化財研究院, 『清州 父母山城』 I, 2008.
- _____, 『청주 서문동 마야복합상영관부지내 清州 西門洞 성안遺蹟』, 2008.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주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부지내 청주 복대동유적』, 2008.
- 전덕재, 『韓國 古代의 王京과 都城, 地方都市』, 『歷史學報』207, 歷史學會, 2010.
- _____, 『新羅의 王京과 小京』, 『歷史學報』209, 歷史學會, 2011.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Seowonsulseong Fortress and Seowonkyeongseong Fortress of the Silla

Roh, Byung-Sik

According to *Samguk Sagi*(三國史記), it is after King Munmu when the Silla entirely dominated the central area of Cheongju and King Munmu constructed Seowonsulseong Fortress in 673. After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King Sinmun established Seowonsokyeong (minor capital unit) in the August of 685 and built Seowonkyeongseong Foretress in 689. Seowonsokyeong retained both political and military characteristics.

Seowonsulseong Fortress is speculated to be the present Cheongju Sangdangsanseong Fortress. The construction of Seowonsulseong Fortress was achiev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eowonsokyeong. After the unification the expansion of territory,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e change of the aspect of battles demanded new defense system and it led the expansion of the Fortress.

It was only after 16 years from the construction of Seowonsulseong Fortress when Seowonkyeongseong Fortress was built and it is assumed to be the Uamsanseong Fortress in the same region. Seowonkyeongseong Fortress was probably constructed to relieve the discomfort caused by the location of Seowonsulseong Fortress which was far from the urban area.

Seowonsulseong and Seowonkyeongseong Fortresses are perhaps the evidence that the Silla ear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heongju region as an important traffic hub and economically prosperous region and after the unification in consider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defense system

constructed fortresses behind the city to strengthen the defense system outside and governance system inside.

Seowonsulseong Fortress was built around the mid to late 7th century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y King Munmu as the part of reorganization of defense system completing the outskirts defense line with the capital as the center and the large fortresses in the major cities considering the safety and govern of the provinces. Seowonkyeongseong Fortress is compared with the fortresses built in the late 7th century by King Sinmu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It is an enhanced fortress built in the period of King Munmu and related to the completion of a ruling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Key Words : Silla, Seowonsokyeong, Seowonsulseong Fortress,
Seowonkyeongseong Fortress, Sangdangsanseong Fortress,
Uamsanseong Fortress

